

내년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무주군, 사업 설계 완성도 등 호평... 14개 시·군 가운데 2곳 A등급

무주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가운데 A등급을 받은 곳은 무주군 포함 단 두 곳으로, 무주군은 △사업 설계의 완성도와 △설치 대상지의 적합성, △주민 참여 기반 등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상업·공공시설 등에 설치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부 보급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수용성,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임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2026년도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주민 홍보 등을 거쳐 관내 주택과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라며 "군민의 전기·난

방비 절감은 물론, 지역 에너지 자립도와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며 "친환경 군다운 면모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올해 20여억원을 투입해 무주읍과 무풍면, 설천면 일원 203세대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발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 총 808세대(75억 원 투입)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지원해 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용담댐 수변구역 변경 추진

진안군, 수변구역지정 토지 일부... 22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진안군이 용담댐 준공 후 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아왔던 토지 일부에 대하여 해제 등 변경을 추진하며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진안 용담댐은 2001년 12월 준공과 함께 수질 보호를 위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8개 읍·면 64개 마을이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음식점 등 시설 입지 제한으로 인해, 토지 지가 하락은 물론 행위규제로 인한 지역침체 등 지역발전 저해의 요인으로 지적돼왔으며, 군은 이에

대한 수변 구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군은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해제하여야 한다'는 금강수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17개 지구 32개 마을 2,448필지(1,271㎢)를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변경안을 요청한 상태이다.

현재는 해당 필지에 대해 토지주 개별 통보 및 열람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주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국가예산 확보 온 힘

황인홍 군수,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등 찾아 현안 건의

무주군이 현안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온 힘을 쓰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국회



무주군이 현안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온 힘을 쓰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났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태권도인재양성센터(태권도종합수련센터) 건립(국비 450억원), △무주 덕유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총사업비 국비 187억원), △법무부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신축(국비 475억원) 등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황 군수는 이들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무주군 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예산이 마무리되면 국회 단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4060 한의약 건강교실' 운영

지역 내 아동·청소년 관련 실무자 대상 소진예방교육도 진행

무주군은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4060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무주보건의료원 건강증진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고령화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사를 비롯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보건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4060 한의약 건강교실'에 참여하면 개인 증상에 따른 한방침을 비롯해 한약 처방 등 한의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기초검사로 받고 이동 금연 클리닉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주민 김모(88)씨는 "무릎이랑 허리가 결려서 상담받고 침도 맞았다"라며 "내 나이에 필요한 생활 습관과, 운동,

건강관리 요령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전했다.

12일에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관련 실무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진예방 교육 '마음의 온도 향기로 채우다'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정서적 소진을 줄이고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아로마테라피가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모(43)씨는 "향기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와서 실감했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여름방학 어린이 수영 특강반' 성료

장수군은 관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어린이 수영 특강반'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건전한 방학 문화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매주 월·수·금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한누리전당 너울관 수영장장에서 진행됐고 선착순 접수를 통해 총 2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특강은 수영장 이용 예절부터 수상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했고 자유형 위주의 기초 기술 수영법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기 수업을 진행해 어린이들이 물에 대한 친밀감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도록 운영했다.

특히 이번 특강반은 수강료를 전액 감면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으며 한누리전당 소속 수영강사 2명이 어린이들의 수영 실력과 체력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강습을 진행했다.

여기에 안전요원 2명이 상시 배치돼



수업 내내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했다.

처음에는 물에 몸을 맡기는 것조차 서툴던 아이들이 강사의 안내에 따라 점차 자신감 있는 동작을 보여주며 웃음 짓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고 물속에서의 작은 도전과 성취가 이어지며 수영장은 배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이 됐다.

또한 체계적인 강습을 통해 단순한 놀이 중심이 아닌 '배우는 수영'의 의미를 담아 생활 체육 참여 기반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임진왜란 웅치전적지 순국선열 추모제 거행

웅치전적지보존회(이사장 최규영)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창렬사에서 임진왜란 웅치전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선열들을 선양하는 추모제를 거행했다.

당시 왜군은 개전 19일 만에 수도인 한양을 점령하고 2개월 후 전라도를 제외한 조선국토의 전역을 장악하였다.

1592년 음력 7월 8일 광창지대인 호남을 장악하기 위해 금산-용담-진안을 거쳐 전주로 향하던 왜군 1만여명과 조선의 관군과 의병 연합군 2,000여명

이 웅치 일원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큰 손실을 입은 왜군은 결국 전주를 점령하지 못하고 진안을 거쳐 금산으로 후퇴하게 된다.

웅치전투는 실질적인 조선군 최초의 승리로, 호남에서 확보한 전쟁물자와 군사력 등은 추후 임진왜란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임진왜란 웅치전적지는 2022년 12월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제례에서는 초헌관에 전춘성 진안군수, 아헌관에 동창욱 진안군의회 의장, 종헌관에 이석근 보존회 이사가 각각 예를 올렸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장수군은 군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민 누구나 배움의 가치를 누리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모두 15개 과정에 걸쳐 156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과정별 모집정원은 6~15명 내외이다.

모집 분야는 △노르딕워킹 △민주시민교육 △수제간식 만들기 △매듭공예 △증여상속 △군현장기제조 △수제화 △코바늘 △AI영상제작 △스마트스토어 창업 △레진아트 △북공예 △가죽공예 등이다.

모든 강좌는 장수군민회관, 장수군농공귀촌종합지원센터, 장계생활문화센터, 계남면종합복지회관 등 10개소에서 운영되며 장수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입주자 모집

진안군은 올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한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이나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가 중, 건축물대장과 등기에 실정인 명의가 등재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소유자에게는 주택 보수비용 2,500만원을 지원, 해당 주택은 4년간 무상 임대된다. 군은 8월 입주자 모집과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9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가구로서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양양자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 등이다.

접수 기간은 8월 18일부터 27일까지이며, 모집 물량은 총 5가구다. 신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주거환경팀(063-430-2469) 담당자와 우선 상담 후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